

(766)

조선

주제 109
(2020)

5



4



14



20



26



차 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진행	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지도하시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 진행	4
평양의 어제와 오늘	6
자력으로 부흥하는 강원도	14
봄을 맞은 만경대남리부락	20
하운을 확보예로	22
100살 장수자	24
국기발전을 위해	25
북반은 세상둥이	26
천리마건재종합공장	28
새 제품개발을 위해	30
류다르 정서를 자아내는 말란꽃들	32
러선의 습지를 찾아서 (1)	34
민속무용 장고춤	38
백두산 장군봉에서 발굴된 유물들	40
함경도지방의 특산음식	4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4월 1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인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정치국회의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의정이 결정되었다.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의 지속적인 확산추이에 대처하여 비루스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계속 엄격하게 실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성된 대내외환경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일부 정책적과업들을 조정변경할데 대한 대책적문제들을 연구 토의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공동결정서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둘째 의정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출할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연구하고 승인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셋째 의정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출할 간부문제에 대하여》를 심의하고 승인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정치국회의에서 공동결정서를 채택하여 중요하고도 새로운 정책들과 과업들을 제시한데 맞게 각급 당조직들과 간부들, 당원들이 더욱 각성분발하여 당중앙의 정책적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거세찬 혁명열풍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인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 참가하시였다. 주체 109(2020)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주체109(2020)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관하 추격습격기련대를 시찰하시였다.
주체109(2020)년 4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박격포병들은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실전능력을 소유



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해온 나날들에 련마한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그 어떤 화력지원전투임무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된 일당백포병의 전투력을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포탄 60발중 60발을 정확히 목표에 명중시킨 조선인민군 제2군단과 제10군단을 비롯하여 모두 강한 우의



성적을 받은 각 군단 박격포병중대들의 놀라운 사격술을 거듭 치하하시면서 감시소에서 화력진지들에 감사를 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관하 추격습격기련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추격습격기련대 전투기들의 출격



준비상태와 서부지구 령공방어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시였으며 련대의 최우수비행사들과 만나시여 담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추격습격기련대의 비행훈련을 보시고 전투비행사들의 용맹한 공중기동과 전투행동들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4월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는 전당, 전국, 전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자주강국의 존엄과 권익을 견결히 수호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진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는 시기에 소집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인류발상지의 하나인 평양은 반만년에 달하는 조선민족의 발전 역사가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도시이다.

그러나 진정한 인민의 도시로서의 발전력사는 조국해방의 날 (1945. 8. 15.)을 맞은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주체35(1946)년에 보통강개수공사가 진행되어 장마철마다 물란리가 나던 보통강반은 큰물피해를 영원히 모르게 되었으며 평양의 면모는 일신되었다.

1950년대에 제국주의침략세력이 강요한 3년간의 조선전쟁은 평양

평양의 어제와 오늘

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 침략자들은 평양이 100년이 걸려도 복구되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었다.

그러나 전후복구건설의 힘찬 동음속에 수도의 첫 거리인 오늘의 승리거리가 개통되었으며 이어 청년거리와 칠성문거리를 비롯한 새 거리들이 편이어 일떠섰다.

특히 건설의 번영기가 펼쳐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락원거리, 문수거리, 창광거리, 북새거리, 광복거리 등이 시안의 곳곳에 건설되고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 5월1일경기장 등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솟아올라 평양의 모습은 완전히 변모되었다.

1990년대초에는 동평양의 락랑지구에 통일거리가 건설되었다.

최근의 10년사이에만도 평양의 모습은 또 달라졌다. 창전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러명거리와 같은 아름다운 거리들이 건설되고 인민극장과 룡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시설들도 도처에 생겨났다.

철승경개로 자랑높은 평양은 지금도 계속 일신되고있다.

사진 홍광남, 리진혁, 글 김미에



전후의 보통문일대



오늘의 보통문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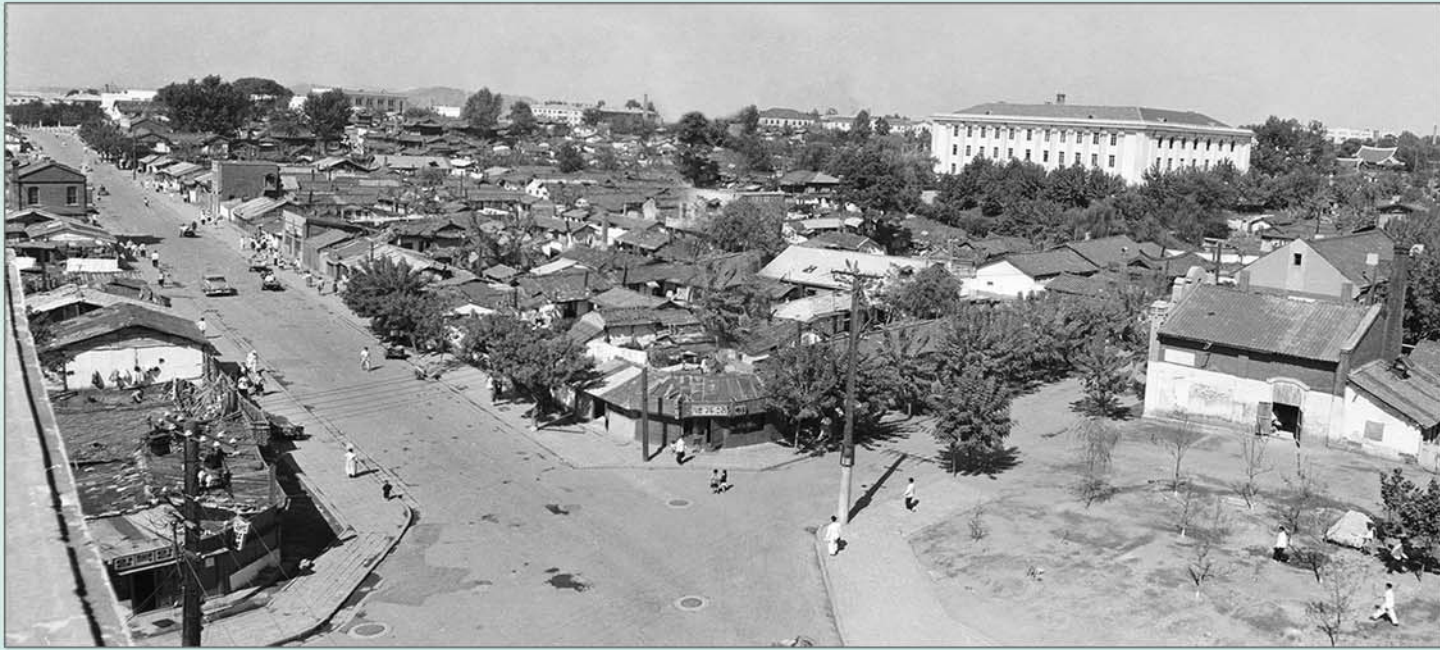


1960년대 중엽의 김일성광장



변모된 대동강과 보통강일대





1960년대초의 서문동지구



주체98 (2009) 년에 만수대거리가 일떠섰다.



1960년대 중엽의 경상동지구



주체101 (2012) 년에 창전거리가 일떠섰다.



1970년대초의 금성거리



주체106 (2017) 년에 일떠선 려명거리



평양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의 일부



주체사상탑



천리마동상



과학기술전당



개선문



문수물놀이장



평양대극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한 체육문화봉사기지들이 일떠섰다.

자력으로 부흥하는 강원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답게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투쟁기풍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결의에 넘쳐있는 강원도인민들 주체107(2018)년



강원도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원산군민발전소의 언제

조선의 중동부에 위치하고있는 강원도는 대부분이 산지이고 기후 변화가 심하며 공업토대도 미약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오늘은 창조와 건설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가는 고장으로 되었다.

그 첫걸음은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력발전소건설이었다. 조선서해로 흐르는 강물의 흐름을 조선동해로 돌려 전기를 생산하게 되어있는 원산군민발전소의 건설은 수십km에 달하는 물길굴뚝기와

근 200만m³의 언제쌓기 등을 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였다.

그러나 도에서는 인민들의 양양된 정신력과 과학기술력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가며 마침내 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웠다.

이 과정에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정신이 온 강원땅에 맥박치게 되었다.

주체105(2016)년 12월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와 원산





군민발전소를 비롯한 도안의 여러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도의 일군들과 인민들에게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값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다음해인 주체106(2017)년 엄혹한 난관이 겹쳐드는 속에서도 도안의
18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10월 10일)전으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으며 원산구두공장, 금강군, 도파학기술
위원회는 시대의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였다. 주체107(2018)년에는
한해에 2 00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는 강원도양묘장이 건설되어
산림복구전투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지난해에는 도수산사업소,
매봉산샘물공장, 도양로원 등이 련이어 일떠섰으며 현재 여러 발전소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있다.

지금 강원도는 강재와 세멘트로부터 마감건재에 이르기까지 도안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많은것을 자체로 생산해내고있다.

농업부문에서도 새로운 재배방법을 받아들여 농경지의 대부분을
이루고있는 저수확지들에서의 소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원산구두공장에서 생산되는 《매봉산》구두를 비롯하여 도안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전국적으로 손꼽히고있다.
오늘도 강원도는 더 높은 발전목표를 향하여 씩씩이 전진하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김선경



원산구두공장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



문천강철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서는 자기 지방의 원료로 여러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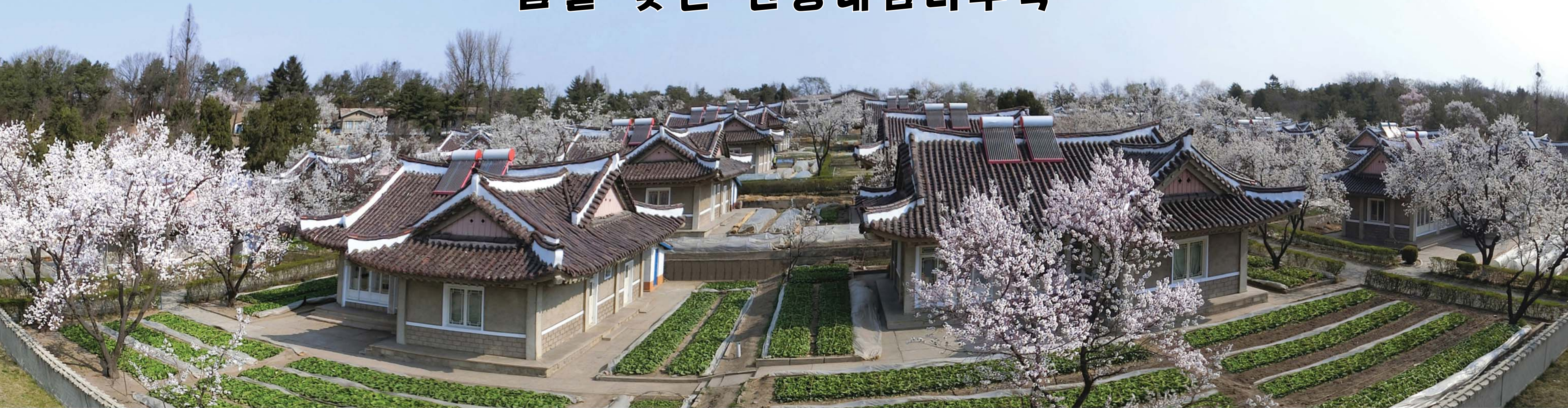


원산시강냉이가공공장, 원산김치공장 등 지방산업공장들은 도안의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



원산제염소

봄을 맞은 만경대남리부락



봄을 맞이한 이 땅 그 어디나와 마찬가지로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남리부락도 향기그득한 꽃바다속에 물렀다.

구름처럼 하얗게 피어난 살구꽃들이 함각지붕을 인 조선식기와집들이 준비하게 늘어선 아담한 마을과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풍치를 펼쳐

놓았다.

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농촌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주택들을 이곳에도 일떠세웠으며 그후 주체74(1985)년에 또다시 번듯하게 지어 남리부락의 주민들에게 안겨주었다.

국가의 혜택속에 나날이 운택해지는 자신들의 생활을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서로의 힘과 마음을 합쳐가는 이곳 사람들이다.

그들은 집집마다 살구나무를 비롯한 많은 과일나무들을 심어 가꾸고 많은 집짐승들도 키우며 살림살이를 풍성하게 하고있다.

오래전부터 태양열물가열기를 집집마다 설치하고 그 덕을 보고있다.

봄이면 꽃들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열매가 주렁지는 남리부락의 모습은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있다.

사진 안평연, 리명국, 신충일, 글 최이림





하늘을 활무대로

- 함경남도 항공구락부에서 -

조선의 각 도들에 있는 항공구락부들과 마찬가지로 함경남도 항공구락부가 설립된것은 5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락부의 이름은 항공체육부문의 전문가, 선수들속에 잘 알려져있다.

이곳 구락부에서는 자유비행활공기, 자유비행 고무동력기, 무선조종교예기 등 모형항공체육 종목과 락하산종목의 선수들이 자라고있다.

감독들은 초급중학교시절의 청소년들속에서 명석하고 육체적준비가 좋으며 종목별선수로서의 적성체질을 갖춘 대상들을 찾아내는데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그리고 매 양성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기초훈련단계때부터 정확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이끌어주고 있다.

양성과정을 거쳐 선수로 되기까지 대체로 수년 정도의 훈련과정을 걸쳐야 한다.

설계와 제작, 날리기기술의 집합체인 모형항공 기술이나 난도높은 락하기술을 완벽하게 체득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패의 눈물을 흘린적도 없지 않았다는 이곳 선수들이다.

그러나 구락부의 모든 남녀선수들은 푸른 하늘에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새겨갈 마음 안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오늘도 계속 훈련장으로 나가고 있다.

이곳 선수들은 공화국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해마다 진행되는 항공체육경기들에서 항상 순위권에 입선하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김필





100살 장수자

지난 1월 17일 평양시 중구역 동성동의 한 아파트는 여느때 없이 흥성거렸다.

동네에 사는 현봉학할머니가 백번째 생일을 맞은것이였다.

로인을 축하하기 위해 일가친척들과 정다운 이웃들은 물론 구역과 동의 일꾼들까지 모여왔다.

그들의 따뜻하고 진정어린 인사를 받을수록 로인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일체의 식민지통치시기 함경북도 어랑군의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나 망국노의 설움속에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그는 조국해방의 날(1945. 8. 15.)을 맞이하고서야 참다운 인간의 삶을 누릴수 있었다.

나라에서 취한 조치에 의해 비로소 글을 배워 문맹을 퇴치하던 일이며 자식을 업고 성인학교에 다니던 나날이 지금도 감회깊이 되새겨졌다.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애국미헌납운동에도 적극 참가하였던것이 어느덧 70여년전의 일로 되였다.

남편이 대학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을 때도 생각키운다.

자식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노래를 부르며 학교로 오가는것을 기쁨과 눈물속에 하염없이 바라보던 일도 잊혀지지 않는다.

로인은 나라에서 돈 한푼 받지 않고 교과서와 학용품을 내주고 철따라 교복을 입혀주면서 아들딸 7남매모두를 대학까지 공부시켜주었고 교원, 의사 등으로 키워주었으며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이곳 호당당의사의 말에 의하면 현재 로인의 뇌순환 및 뇌신경상태는 60대의 사람과 거의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평양시 식생활에서 전통음식인 김치를 특별히 좋아하며 지금도 간단한 동자질과 바늘질, 뜨개질을 곧잘하는 로인은 가끔 자손들과 함께 민속놀이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사진 황정혁, 리진혁, 글 박영조



축구발전을 위해

아시아축구련맹 집행위원인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 한은경은 동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여성위원이다.

그는 조선동해를 끼고있는 함경남도 신포시에서 태어났다.

당시 신포수산사업소에서 일하고있던 아버지와 교육자였던 어머니는 네자식가운데서도 막내딸인 그를 무척 사랑하였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활발하여 운동을 즐겼던 은경은 체육종목들중에서도 축구를 제일 좋아하였다.

그러나 중학교시절에 심하게 앓은것으로 하여 훌륭한 여자축구선수가 되려던 꿈을 이룰수 없게 되였다.

대학시절에도 은경은 축구에 대한 애착심을 안고 전공과목공부에 열중하면서도 축구와 관련한 지식을 많이 쌓아나갔다.

그런것으로 하여 조선올림픽위원회(당시)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면서부터 사업에서 남다른 실력을 보이였다.

그후 조선체육대학까지 나온 그는 주체93(2004)년에 조선축구협회 국제부 집행서기로 되였으며 주체102(2013)년부터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으로 일하고있다.

그가 아시아축구련맹에서 사업하게 된것은 주체100(2011)년에 련맹의 여자축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면서부터이다.

2년후에는 아시아축구련맹 집행위원이 되였으며 주체105(2016)년부터는 아시아축구련맹 협회위원회 부위원장사임도 맡아하고있다.

현재 그는 국제축구련맹 성원협회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비록 축구선수는 되지 못했어도 나라의 축구발전을 위한 사업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그이다.

사진 리진혁, 글 강수정



아시아축구련맹 집행위원,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 한은경



아시아축구련맹 성원들과 함께 평양국제축구학교를 찾은 한은경



주체107(2018)년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한 아시아축구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여



복 받은 세쌍둥이

지금으로부터 7년전 4월 11일 평양산원에서는 432번째 세쌍둥이가 태어났다.
산모는 평양시 보통강구역에서 사는 금성제2중학교 교원의 아내인 현영이었다.
임신부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받는 검진과정에 다태자를 임신한것으로 확인된 현영애가 즉시 평양산원으로 파송될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체질이 약한 그를 은근히 걱정했다고 한다.

그러한 며느리가 입원한지 5개월만에 하나같이 건강한 세쌍둥이를, 그것도 하나같이 사내아이를 순산하자 너무 기뻐 어쩔바를 몰랐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나라의 덕으로 복을 받아 흥하라는 의미를 담아 손자들의 이름을 리경덕, 리경복, 리경홍이라고 지어주었다.
세쌍둥이들이 태어나면 나라에서 아버지와 사내애에게는 은장도를, 어머니와 처녀애에게는 금반지를 준다는것을 할머니는 이미 알고



나라에서 세쌍둥이들에게 보내준 은장도 주체102(2013)년 6월



첫돌을 맞는 세쌍둥이 주체 103(2014)년 4월



있었다.

그러나 세쌍둥이들은 몸무게가 4kg이상 될 때라야 평양산원에서 퇴원할수 있다는것이며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는 국가가 맡아 육아원에서 키운다는것 그리고 그후에도 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담당의사를 따로 둔다는것 등은 손자들이 자라는 과정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2년전 육아원과정을 마친 세쌍둥이가 집가까이에 있는 보통강구역 경흥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때까지도 부모들은 자식들의 취미와 소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

말이인 경덕이가 미술에 소질이 있는것을 찾아낸것도, 그 짝을 훌륭히 가꾸어 주체108(2019)년 7월에 진행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에서 1등을 쟁취하도록 한것도 그리고 세쌍둥이모두가 민족악기인 장고를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무럭 무럭 자라도록 이끌어준것도 유치원의 선생님들이였다.

올해는 리경덕, 리경복, 리경홍이 소학교학생이 되는 해이다.

사진 리명국, 글 문광봉



평양육아원에서 주체 104(2015)년



천리마건재종합공장

평양시 교외에 자리잡고있는 천리마건재종합
공장에서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끊임없이 강화
하면서 건제품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최근년간 공장에서는 생산 및 경영활동을
현대화,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기있게
추진되어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가 훌륭히



실현됨으로써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을 보다
높일수 있게 되었다.

철판지붕재직장, 경량강철구조직장, 수지
건재직장 등 모든 생산현장들에 확립된 흐름
식생산공정들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와 규격, 색깔
의 철판지붕재와 늑창, 차열복합판, 각이한
용도의 강철구조물들과 수지제품 등이 생산
되고있다.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금속건구와 경량화된 가구생산공정들도

새로 꾸려놓은 공장에서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재자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계속 밀고
나가고있다.

기술적지표들에 있어서나 미적가치에 있어
서 손색이 없는 공장의 건제품들은 건축의
조형성과 예술성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인것
으로 하여 건설부문의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최원철, 리명국
글 박병훈





새 제품개발을 위해



평양화장품공장의 《은하수》 상표를 단 화장품들이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여기에는 공장의 화장품연구소 연구사들의 탐구의 열정이 어려있다.
공장의 개건현대화와 함께 주체106(2017)년에 발족된 연구소에서 사업하고있는 그들은 대부분이 20대, 30대이다.

연구사들은 천연적이고 저자극적이며 기능적인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줄 일념 안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새 제품개발을 위한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왔다.
그들은 피부에 대한 기능적인 효과가 좋은 천연재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가장 합리적인 배합비율을 확증해나갔다.



《은하수》상표를 단 화장품들은 천연적이고 저자극적이며 기능적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이 과정에 개성고려인삼과 금당화, 록두, 꿀 등을 원료로 하여 피부에 적은 자극을 주면서도 보습과 미백, 주름개선효과 등이 뚜렷한 화장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제품개발에 자외선방지기능 등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었다.

연구집단은 지금까지 470여가지의 화장품을 개발하였으며 이미 생산되고있는 제품들의 질도 부단히 개선하였다.
오늘도 평양화장품공장 화장품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을 내놓기 위한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사진 손희연, 글 최의림



류다른 정서를 자아내는 말린 꽃들



최근 백화점들의 꽃매대들을 비롯하여 평양시안의 꽃상점들에서 말린꽃제품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말린꽃제품들은 살림집과 사무실 등 임의의 장소를 계절에 관계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장식할수 있게 하는것은 물론 생화를 리용하는것보다 경제적인것으로 하여 많은 구매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류다른 정서를 안겨주는 이 제품들은 평양화초연구소 말린꽃제작소 연구사들과 종업원들의 창조물이다.

이곳의 제품전시장에 진렬되어있는 꽃바구니와 꽃다발, 장식함 등 말린꽃들로 만든 제품들은 생화로 만든것과 조금도 구별이 없는듯싶다.

장미, 백일홍 등 여러가지 꽃들과 보리, 조는 물론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자연물을 리용하여 특색있게 만든 말린꽃제품들과 장식용화초제품들은 하나의 정교한 공예품을 방불케 한다.

이곳 연구사들은 새 기술을 부단히 탐구도입

하면서 꽃과 나무 등 식물의 특징을 그대로 보존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계속 내놓고있다.

최근에는 말린소나무제작기술을 완성하여 사무실을 비롯한 건축물의 실내공간을 독특하게 장식하고 보다 정서적인 환경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사진 안철원
글 정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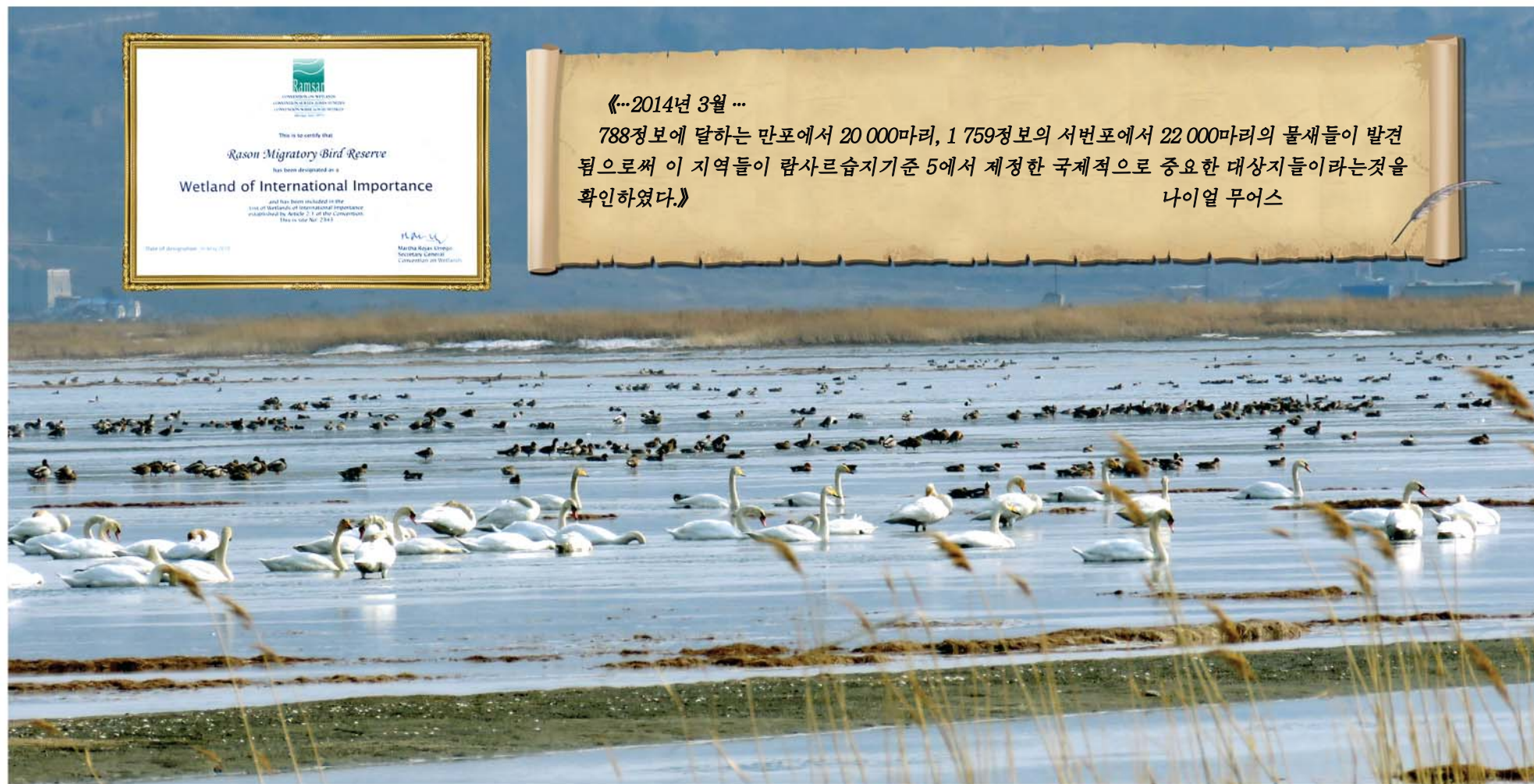
라선의 습지를 찾아서 (I)



《...2014년 3월 ...

788정보에 달하는 만포에서 20 000마리, 1 759정보의 서변포에서 22 000마리의 물새들이 발견됨으로써 이 지역들이 람사르습지기준 5에서 제정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대상지들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나이얼 무어스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리워오는 조선에서는 어디 가나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볼수 있다.

맑은 물 출렁이는 호수들과 크고작은 만과 섬들, 울창한 수림 등이 펼쳐져있는 조선의 북부 라선지구는 철새들을 비롯한 동물들의 더없이 좋은 살이터, 리상적인 보금자리이다.

이 지역에서는 해마다 250여종에 달하는 5만마리이상의 물새들이 관찰되고있으며 그중에는 국제적인 위협종새만도 30여종이나 된다.

수많은 철새들의 주요한 서식지, 이동중계지인것으로 하여 주체84(1995)년에 철새(습지)보호구로 설정된 두만강하류의 넓은 지역은 주체107(2018)년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람사르대상지)로 등록되었다.

주체48(1959)년에 바다새보호구로 설정된 알섬 역시 갈매기와 바다가마우지 등 수십종의 바다새들의 번식지이다.

라선시의 습지생태계는 오늘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정책에 의하여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지고있다.

글 박영조



바다꿩 (취약종)



검은목농병아리



흰이마쇠기러기



검은머리갈매기 (취약종)



사막갈매기 (취약종)



바다가마우지



알락꼬리마도요 (위기종)



댕기도요 (준위협종)



긴다리도요

《2014년 3월말에 적어도 135마리의 원앙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조선에 있는 총마리수의 4%에 해당된다.》
나이얼 무어스



검은머리메새 (준위협종)



물개구마리



붉은뺨메새



쇠부엉이



민속무용

장 고 춤



조선의 민속무용들중에는 장고춤도 있다.
장고는 오랜 역사를 가진 민속악기의 하나
로서 고구려(B.C. 277년-A.D. 668년)시기의
무덤벽화들에도 장고를 치는 악사들의 그림이
있다.
장고를 치면서 추는 이 춤은 농악무를 비롯한

여러 민속놀이에 참가한 장고잡이들이 장단을
치는 것과 함께 여러가지 춤틀동으로 흥취
를 더욱 돋구면서부터 점차 독자적으로 발전
하게 되었다.
장고잡이들의 대다수가 남자였던것으로
하여 처음에는 남자들만 추었으나 점차 여성들도



장고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남자들의 장고춤이 힘있고 활달하며 시원
스럽다면 녀자들의 장고춤은 한결 부드럽고
우아하여 경쾌한 느낌을 준다.
한손에 잡은 채로 장고의 두편을 빠른 속도로
번갈아치면서 여러가지 무용동작들까지 함께

펼칠 때면 장고춤의 매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민속전통이 훌륭히 계승발전되고있는 오늘날
장고춤은 예술인들뿐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넌리 추고있다.

사진 신충일
글 문진유





백두산 장군봉에서 발굴된 유물들



백두산의 장군봉마루에서 발굴된 대종교의 기본경전인 《천부경》의 석판(돌판에 새긴 종교경전)과 대종교에서 단군을 의미하는 상징물인 삼각형의 푸른색옥돌판

최근 백두산에서 대종교관련 유물들이 새로 발굴되었다.

발굴된 유물들은 글이 새겨진 대리석판과 바른삼각형의 푸른색옥돌판이다.

장군봉마루의 땅속 30cm 깊이에서 길이 31cm, 너비 21.5cm인 대리석판이, 그로부터 2m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번의 길이가 17.5cm인 바른삼각형의 푸른색옥돌판이 발견되었다.

잘 연마된 대리석판의 앞면에는 《천부경》이라는 제목이 한자로 새겨져있고 그아래에 81자의 글이 새겨져있다. 글자들은 붉은색의 색감을 발라서 획들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였다.

력사자료와 글자에 남아있는 색감에 대한 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대리석판의 글자들이 1930년대에 새긴것이며 81자의 글자들은 대부분이 매우 오래전에 사용하던 옛 문자라는것을 밝히었다.

연구집단이 고종한데 의하면 81자로 새긴 글은 대종교의 기본경전의 하나인 《천부경》이다.

대종교는 고조선(B.C. 30세기초-B.C. 108년)의 건국설화에 나오는 환인, 환웅, 환검(단군)을 신주로 하는 민족종교로서 1909년에 발생하였다.

앞면과 옆면들을 잘 연마하여 매끈하게 만든 푸른색옥돌판은 단군을 상징하여 만든것이라는데것이 확증되었다.

백두산에서 대종교관련 유물들이 새로 발굴된것은 조선민족이 예로부터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성지로 높이 숭상하였다는 사실을 더욱 뚜렷이 증명하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확인하고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선경

함경도지방의 특산음식



회국수



찰수수지짐



연감자국수와 영채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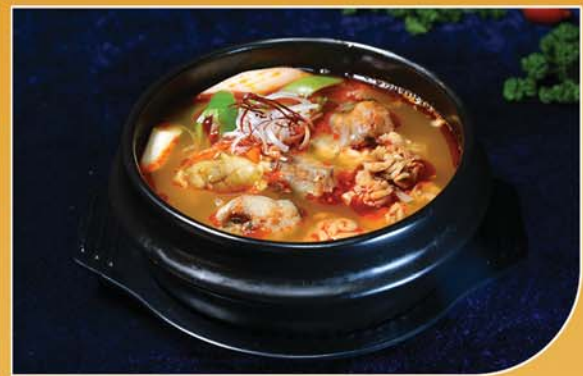
가재미식혜



왕새우찜



연감자떡



명태매운탕

조선에서 함경도지방이라고 하면 오늘의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량강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들을 포괄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 지방은 조선동해안의 벌과 북부의 산간지대, 조선동해의 중요어장을 끼고있는것으로 하여 산해진미가 다 있다.

콩, 강냉이, 수수, 감자를 비롯한 밭곡식과 참나물, 고사리, 고비, 더덕을 비롯한 산나물 그리고 동해의 명태, 가재미, 이면수, 털게, 문어 등 수산물은 이 지방음식의 기본재료였다.

함경도음식은 활달하면서도 개방적인 이 지방사람들의 성격처럼 자극적이면서도 신선한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것으로 감자농마국수, 찰수수지짐, 단고기장, 명태매운탕, 영채김치, 가재미식혜 등을 들수 있다.



영계찜



게찜

이 지방의 감자농마국수는 국수오리가 질기고 매끈매끈한것이 특징인데 꾸미로는 편육이나 물고기회를 쓴다.

함경도단고기장은 고기를 한번 삶아낸 물을 찌워내고 다시 물을 붓고 끓여서 만들며 매운 맛을 내는 양념감을 많이 쓴다.

맑은 소고기장국물에 마늘, 실과, 고추장과 함께 버무린 명태를 넣어 끓인 명태매운탕은 이 지방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이다.

함경도에서는 예로부터 귀한 손님이 오면 영채김치가 음식상에 올랐다.

가재미식혜는 소금에 절인 가재미토막에 조밥, 마늘, 고추가루, 엿길금가루 등을 버무린것을 단지에 넣고 2~3일 지난 다음 무우를 썰어넣고 삭혀서 만든다.

함경도지방의 음식들은 오늘 전국에 널리 파급되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김미예

